

광주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추진 나선다

유가족·참사 피해자 치유 자조공간 '1229 마음센터' 마련 추모·치유 문화제 개최 추진...지역 관광업계 피해 지원도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자조 공간인 '1229 마음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기자단과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건의안 세부 내용에 유가족 치유 공간 조성 등 경제 회복 지원 등이 담기도록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안 건의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의 근거가 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공간 마련,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 담기게 된다.

강 시장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내실화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희생자 유가족과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자조공간인 '1229 마음센터(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는 제주항공 희생자 유가족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사회재난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이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 장소와 조성 시기 등은 유가족들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1229 마음센터 추진은 유가족과 합의를 전제로 진행한다"며 "우선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일빌딩245를 센터 입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경기침체와 정국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참사 여파로 삼중고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에도 지원한다.

강 시장은 "광주시 차원의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최대 50억원 지원하겠다"면서 "국가 지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 긴급돌봄 지원대상과 지원시간 확대를 건의한 상태다.

강 시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당초 4촌 이내 혈족과 동거인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72시간(150만원 상당)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대상과 지원시간을, 광주시의 통합돌봄처럼 90일 이내 216시간(450만원 상당)으로 확대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 검토 의견을 줬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와 치유의 문화제'를 유가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CES 2025' 참석 등 국내외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애도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유가족과 심리·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라며 "유가족과 넓은 의미의 피해자 결여에서 기댈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밀 국수 단돈 천원" '천원국수' 8호점 개소

광주 서구청의 천원국수 8호점이 9일 오전 농성1동 골든힐스타워 상가에서 문을 열었다. 주방에서 1004 돌봄서포터즈들이 국수를 만들고 있다. 서구청의 천원국수는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밀로 만든 국수를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도시정비사업 투명·공정성 높인다

국토부에 광주시 표준정관 고시

광주시가 도시정비사업 정관을 손질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

광주시는 9일 "이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광역시 중 부산시(2020년), 서울시(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마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완성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구분되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회 등의 결의사항·방법·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https://hreas.gwangju.go.kr/)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전남도, 올해 저수지 39개소 준설...가뭄·홍수 대응 능력 강화

국비 160억 확보...전국 최다 선정 10만㎡ 9개 저수지 신설 효과 기대

전남도가 올해 39곳의 저수지 준설사업에 필요한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다. 10만㎡ 면적의 저수지 9곳을 신설하는 효과로, 가뭄·홍수 대응 능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저수지 준설사업에 전국 최다인 39개소가 선정돼 총 160억원의 국비를 확보, 2년 연속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선정된 저수지는 우기 전 준설이 가능하고 퇴적 비율이 높으면서 수해 면적이 넓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다.

지역별로 영광 8개소, 구례 7개소, 해남 6개소, 나주 5개소, 장성 3개소, 순천, 고흥, 진도 각 2개소, 곡성, 보성, 화순, 함평 각 1개소다.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지사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퇴적으로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39개소의 저수지 준설이 마무리되면 총 90만㎡의 저수용량이 확대돼 10만㎡의 저수지 9개를

신설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퇴적토 제거로 저수지의 물고름을 키위 안정적 영농 급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과 함께 저수지 하부 부유물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도 예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신규 지구 발굴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할 '드림터' 모집합니다"

22일까지 신청...최대 5개월 인건비 90% 지원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드림터(사업장)'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지역 청년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성에 맞는 직무를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드림터' 대상은 광주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으로, 청년에게 단순 보조 직위가 아닌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질 좋은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 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가치(경제) 등의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17기 드림터'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최대 5개월 간 광주시로부터 참여청년 인건비 90%를 지원받아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

일경험 참여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연계 채용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경험을 종료한 후 '드림청년(참여 청년)'을 1년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중소기업)은 채용 청년 1명 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드림터(사업장)는 22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하고,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1월 말 최종 드림터를 선정·발표한다.

드림터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일경험드림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 청년과 함께 성장하며 좋은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일경험 후에 지역 미취업 청년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현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도시 36